

‘JP와 골프’

이태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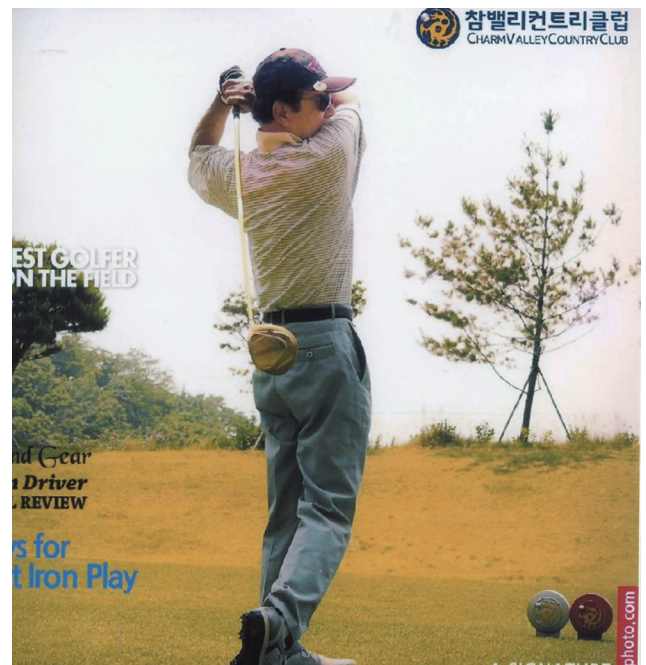
(재)운정재단 부이사장

JP만큼 골프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라운딩을 하던 분이 6년전 뜻하지 않게 오른팔과 다리가 불편해 진 후필드에 나가지 못하게 된 심경이 어떠하겠는가.

JP의 스윙 폼은 독특하다. 검도선수였던 연고로 검도 스타일로 굳어졌다고 한다. 골프채를 처음 잡은 날부터 필드에 서 시합을 했다고 한다. 더구나 프로에게서 정식 레슨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연습장이라고는 한번도 간 적이 없는 분이니, 골프 스타일이 자유스타일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JP의 골프 폼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
간 큰 코 다친다. 40년 이상 연마된 골프이기에 80대 초반
접수는 언제나 가능하다.

JP의 최고 성적은 70타다.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증인이다. 7,8년전 서울C.C.에서 이사회의원(교수, 신문사 발행인), 김정원 안기부 차장(YS특보)과 내가 JP와 라운딩을 했는데 그날 JP의 어프로치와 퍼트는 정말 신들린 것 같았다. 버디만 6개 했으니 점수가 안 좋을리 없다. 멀리건이나 기부를



골프 월간지 표지에 실린 이태섭 부이사장의 스윙 모습.

몇 개나 쫓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잘 알다시피 멀리건이나 기브로는 버디가 불가능하다. 우리 셋은 아담 한 축하패를 만들어 드렸다.

스코아 카드를 본 이병철 회장께서 “김진봉 의원은 김 총리 잘 모시라 했더니 골프만 열심히 친 모양이네...” 하시는데, 나의 대답은 “우리 총리님께서서는 뭐든지 하면 잘 하라고 하셔서...” 그 좌중에 웃음이 한바탕 일었다.

- 1968년 한양C.C에서 240여 명이 참가한 ‘롯데제과배’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 위크 엔드 골퍼(Week-end Golfer, 주말 골퍼)인 내가 -2, 70타를 쳐서 메달리스트 상을 받게 되었는데, 시상자인 유창순 회장(롯데 회장, 후에 국무총리)이 상패를 주면서 “당의장님한테 일러요” 해서 시상식장을 발각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일도 있었다.

*필자 김진봉 본 재단 이사장은 한때 한양C.C 경기위원장을 맡기도 한 아마추어 최고 수준의 골퍼이기도 하다.

COMPETITION					DATE				
H O U S E	Back Tee	Regular Tee	Par		H O U S E	Back Tee	Regular Tee	Par	
1	111	435	414	5	10	5	534	509	5
2	9	333	314	4	12	2	387	363	4
3	5	362	337	4	12	23	331	305	4
4	117	167	143	3	18	169	149	143	3
5	133	271	253	4	14	4	383	349	4
6	384	365	4	5	15	16	312	293	4
7	350	306	4	6	16	464	443	45	5
8	196	169	3	3	19	169	138	133	3
9	53	537	512	5	18	17	311	345	4
OUT 3025	2813	36	42	36	IN	3120	2694	36	42
					OUT 3025	2613	36	46	46
					TOTAL 1145	5707	72	93	93
PLAYER					HANDICAP				
ATTESSED BY 1947 3 4 1 20					NET SCORE				

1987년 안양C.C.골프장에서 기록한 JP, 정상천, 김진봉, 조병규의 스코아 카드. 김 이사장이 -70의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발전에 JP의 공이 두드러진다.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던 서울C.C.(지금의 어린이대공원 자리)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골프장이었던 시절부터 골프는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골프장을 갈아엎어 콩 심고 팥 심어야 한다는(박정희대통령)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도 했고, 특수층이나 부자들의 놀이터라는 비난이 난무할 적에 JP는 조용히 이런 분위기를 잠재웠던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골프를 소개해서 즐기고 심취하게 만든 사람도 JP다. 60,70년대 많은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면서 골프를 소개하고 머리를 얹어준 사람도 JP다. 그 당시 사회 저명인사 중에는 골프를 혐오한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거의 한결같이 나중에 골프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재미있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와 골프장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골프가 성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다. 한국 여성 프로골퍼들의 활약상

은 정말로 놀랍다. 미국 LPGA에서 무려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력으로 미국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JP는 박세리, 신지애, 김미현 등 많은 프로 골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었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의 많은 골프장들이 한국 골퍼들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정도라 하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한국 골프.....JP가 고맙다. 여러해 전 J골프 채널이 방송을 시작한 초창기에 윤은기라는 골프 칼럼리스트와 JP가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한 대담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윤은기 칼럼리스트가 물었다.

윤은기: “지난 40년 넘게 골프를 치셨는데, 대개 누구와 골프를 치십니까?”

JP: “국회의원, 언론인, 교수, 기업인 등 수없이 많은 분들과 칩니다.”

윤은기: “지금까지 같이 치신 분들 중에 누가 매너가 제일 좋습니까?”

JP: “MIT나오고 국회의원을 지낸 이태섭 장관입니다.”

윤은기: “그럼 누가 제일 골프를 잘 칩니까?”

JP: “(조금 뜬을 들인 후)그것도 이태섭장관입니다. 이태섭 장관이 제일 잘 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초에 방영된 후 여러 번 재방송되어서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이다. 내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졌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 골프장에서 자주 어울린 사람 중에 한갑수 장관은 JP와 늘 드라이버 거리 시험을 했는데 막상막하여서 드라이버도 자주 바꾸고 칼도 열심히 갈아 왔는데 안타까워하고 있다.비교적 자주 라운딩을 하던 이한동 총리, 조부영 국회의원장, 이용만 장관, 심재봉 회장 등은 JP를 모시고 골프장에 나갈 날을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14년 10월 雲庭會報 4호에서 전재〉



JP가 가장 매너가 좋은 골퍼로 손꼽은 이태섭 장관.